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경완, 이명인*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High School Girls on Self-directed Learning

Gyoung Wan Lee, Myung I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여고생 2학년 231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계열, 성적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서지능($r=.560, p<.001$), 진로준비행동($r=.232, p<.001$)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beta=.515, p<.001$), 성적 '중'($\beta=.376, p<.001$), 성적 '상'($\beta=.274, p<.001$), 진로준비행동($\beta=.128, p<.0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0%였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여고생, 학생,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high school girl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rom 231 high school girls in May,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r=.560, p<.001$)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r=.232, p<.001$). Enter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emotional intelligence($\beta=.515, p<.001$), grade 'average'($\beta=.376, p<.001$), grade 'good'($\beta=.274, p<.001$)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beta=.128, p<.05$)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4.0%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trategies to increas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high school girls.

Key Words : stud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Myung In Lee(milee@wu.ac.kr)

Received April 20,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May 15,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이 빅데이터와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각 사회 분야에 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는 시대이다. 미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경우, 상당수가 없어지고, 미래 노동시장의 경우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우리의 사회구조와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 이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우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열악한 고용 상황으로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엔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대처해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2].

오늘날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는 과거와 달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 가공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정보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3],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자기 주도적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4]. 즉,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5], 학습자 또한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은 대학으로의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문제와 직결되어 성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업이기에, 학업 수행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시기에 학업 및 진로 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임하는 것은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으로서 지닌 감성과 소통의 잠재력으로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 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고생들의 자기 주도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정보와 지식의 생성 및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자가 평생동안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6].

자기주도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

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전략, 환경을 선택, 실행하여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7].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이 보다 유연하여 변화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육은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배울 것인지, 지식을 생산해 나가는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협동심, 소통,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5]. 또한 학업 수행이 주요한 발달과업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타인주도적학습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기 능력 수준에 맞도록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과정이 관여되므로 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Lee와 Chung[9]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양적인 학업성취는 이루어졌으나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변인들을 연구하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각각의 정서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표현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끄는 능력이다[10]. Jeong 등[11]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애 단계별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 역량으로, 청소년기의 경우 자율성, 감성적 사고역량, 인문학적 소양을 들었고, Goleman[12]은 직무수행이나 학업성취에서 정서지능이 지능보다 예측력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Kim[6]은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매몰되어 과도한 경쟁에서 버텨내야 하는 중압감,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절망하기도 한다[13]. 이러한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14].

정서는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로 행동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도 한다[15]. 그리하여 정서지능의 발달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6]. 그러나 만약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학습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과제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심리적으로 불안정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정서지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또한 학습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은 상급학교로의 원만한 진학과 사회진출을 위한 청소년의 진로발달과도 관련이 있다[3].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필요한 일을 계획, 실천하는 역량을 키워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인재 또한 자기주도적이면서 원만한 동료 관계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여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17]. 그러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 및 진로준비 행동을 활발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남학생에 비해 직업 인식이 있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식이 더 강한 여학생들의 경우[18], 진로 발달에 있어 성 고정 관념, 시대적 배경, 역할 등 지각하는 진로장벽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19], 진로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로 불안정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 차별화된 진로를 준비해 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말한다[20]. 이때 학생들이 공부해 해야 하는 획일화된 가치 주입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학생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탐색된 꿈을 향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것이다[21]. 이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가 높은 특성을 지니므로[22], 선택한 진로는 학습에 강한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23]. 동기는 학습자 행동의 방향, 강도 및 지속성을 정해주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Driscoll[24]은 개인의 내적 요인, 즉 욕구, 흥

미, 가치, 신념, 포부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 학습자일수록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 결정하며, 진로계획에 따른 행동을 수행하는 실천적 행위인 진로준비행동[20]은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가지는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서지능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 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지나, 이들 관계를 규명하고 변수들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으로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서 진취적인 성장을 해 가야 하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진로준비 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한다.
- 2)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한다.
- 3)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여고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도 I시 지역 소재의 일개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를 수락한 여고생으로 하였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학년의 적응기간을 지내왔고 그동안 학습해온 습관이나 과정, 자신의 진로, 목표를 점검, 확인하고 진급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2학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를 적용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07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의 탈락률을 고려하고,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포함시켜 240명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I시 지역 소재의 일개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전에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설문 조사에 불응할 권리가 있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 처리되어 대상자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배부하였으며,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233부가 회수 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231부가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1997)의 수정된 정서지능 최신모형에 입각하여 Moon[1999]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를 Kim[2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5개 요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2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744였다.

2.4.2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에서는 Park(2003)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 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수정·보완한 Park[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이라는 4개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26]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1였다.

2.4.3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1979)이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검사(SDLRS :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번역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번역한 Hong[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새로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정, 미래 지향성, 창의성, 기본학습능력과 문제해결기술이라는 8개 요인,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2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2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922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계열의 경우 문과 134명(58.0%), 이과 97명(42.0%)이었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적의 정도는 상 52명(22.5%), 중 117명(50.6%), 하 62명(26.8%)이었으며 계열 결정은 10명(4.4%)을 제외한 221명(95.7%)의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였다. 경제 정도는 상 16명(6.9%), 중 196명(84.8%), 하 19명(8.2%)이었고, 부와 모의 학력은 각각 고졸 이하가 90명(39.0%), 110명(47.6%)이었고, 대졸 이상이 각각 141명(61.0%), 121명(52.4%)이었다. 221명(95.7%)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형제 수는 2명 이하인 경우가 155명(67.1%)으로 많았으며, 3명 이상인 경우가 76명(32.9%)이었고, 형제 서열의 경우는 첫 번째인 경우가 113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인 경우가 86명(37.2%), 세번째 이상인 경우가 32명(13.9%)이었다. 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ies	n(%)
Department	Natural sciences	97(42.0)
	Liberal arts	134(58.0)
Grades	Good	52(22.5)
	Average	117(50.6)
	Poor	62(26.8)
Department decision	Decide for oneself	221(95.7)
	Decide by parents	5(2.2)
	Decide due to grades	5(2.2)
Economic degree	Good	16(6.9)
	Average	196(84.8)
	Poor	19(8.2)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90(39.0)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141(61.0)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10(47.6)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121(52.4)
living type	Living with parents	221(95.7)
	Not living with parents	10(4.3)
Brother number	2 people or less	155(67.1)
	3 people or more	76(32.9)
Variables	Categories	n(%)
Rank among brothers and sisters	First	113(48.9)
	Second	86(37.2)
	Third or more	32(13.9)

3.2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지능은 5점 만점에 평점 3.51±0.2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감정이입이 3.70±0.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활용 3.69±0.50점, 정서인식 및 표현 3.60±0.45점, 정서의 사고 촉진 3.59±0.47점, 정서조절 2.99±0.54점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점 2.48±0.4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정보수집활동 2.90±0.55점, 진로탐색활동 2.44±0.53점, 직업체험활동 2.22±0.71점, 취업준비활동 1.93±0.78점의 순이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점 3.40±0.3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이 3.79±0.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학습 기술과 문제해결기술 3.48±0.46점, 창의성 3.47±0.47, 미래지향성 3.46±0.50점, 학습에 대한 애착 3.44±0.46점, 학습에 대한 책임감 3.43±0.44,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 3.36±0.55점, 효과적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3.20±0.44점 순이었다. Table 2 참고.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차이에서 일반적 특성 중 응답 편차가 큰 항목, 즉 계열 결정, 경제 정도, 동거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계열($t=-3.32, p=.001$) 성적($F=5.46,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중', '상'인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적($F=22.62,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중'인 학생이, '중'인 학생보다 '상'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참고.

3.4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서지능($r=.560, p<.001$), 진로준비행동($r=.23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231)

Variables	Categories	Minimum	Maximum	M±SD
Emotional intelligence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2.50	4.75	3.60±0.45
	Empathy	2.50	4.88	3.70±0.53
	Thinking promotion of emotion	2.25	4.75	3.59±0.47
	Utilization of emotion	2.38	5.00	3.69±0.50
	Regulation of emotion	1.50	4.25	2.99±0.54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2.80	4.53	3.51±0.28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earch activities	1.10	3.90	2.44±0.53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1.40	4.00	2.90±0.55
	Job experience activities	1.00	4.00	2.22±0.71
	Job preparation activities	1.00	4.00	1.93±0.78
Tot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23	3.86	2.48±0.48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ove of learning	1.78	4.67	3.44±0.46
	Self-concept as an effective learner	1.88	4.38	3.20±0.44
	Openness to learning opportunities	2.13	4.75	3.79±0.50
	Initiative and independent in learning	1.29	4.86	3.36±0.55
	Future orientation	2.00	4.60	3.46±0.50
	Creativity	2.17	4.67	3.47±0.47
	Responsibility for learning	2.00	4.57	3.43±0.44
Total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26	4.48	3.40±0.38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epartment	Natural sciences	3.50±0.30	-0.44(.658)	2.36±0.47	-3.33(.001)	3.43±0.41	1.27(.207)
	Liberal arts	3.52±0.27		2.56±0.47		3.37±0.37	
Grades	Good ^a	3.58±0.30	1.88(.154)	2.57±0.47	5.46(.005) a,b>c	3.61±0.39	22.62(.005) a>b>c
	Average ^b	3.50±0.25		2.52±0.45		3.42±0.30	
	Poor ^c	3.48±0.31		2.31±0.51		3.17±0.39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52±0.26	0.34(.738)	2.42±0.49	-1.43(.154)	3.36±0.36	-1.29(.197)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3.51±0.30		2.51±0.47		3.42±0.39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54±0.29	1.14(.256)	2.45±0.51	-0.90(.371)	3.37±0.35	-0.83(.407)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3.49±0.41		2.50±0.46		3.42±0.41	
Brother number	2 people or less	3.51±0.28	-0.30(.762)	3.37±0.37	-0.58(.563)	3.37±0.37	-1.78(.079)
	3 people or more	3.52±0.29		3.46±0.40		3.46±0.40	
Rank among brothers and sisters	First	3.49±0.28	0.74(.480)	2.50±0.48	1.38(.253)	3.36±0.36	0.46(.630)
	Second	3.54±0.29		2.44±0.49		3.45±0.41	
	Third or more	3.54±0.29		2.50±0.46		3.41±0.38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참고.

3.5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일반적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231)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p)	r(p)	r(p)
Emotional Intelligence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70(.288)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60(<.001)	.232(<.001)	1

Table 5. Influence Fa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231)

Variables	B	SE	β	t(p)	Tolerance	VIF
Constant	.505	.252		2.008(.046)		
Grades dummy 1(good)	.209	.046	.274	4.557(<.001)	.678	1.475
Grades dummy 2(average)	.344	.055	.376	6.211(<.001)	.668	1.497
Emotional Intelligence	.699	.068	.515	10.310(<.001)	.981	1.02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02	.040	.128	2.532(.012)	.951	1.051
Durbin-Watson's d=1.879 , Adj R ² = .440(R ² =.449), F= 45.928(p<.001)						

특성 중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적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78~.98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0~1.497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79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정서지능(β=.515,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β=.376, p<.001), 성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상'인 경우(β=.274, p<.001), 진로준비행동(β=.128,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상'(B=.209) 또는 '중'(B=.344)인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으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B=.699),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B=.102)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0%이다. Table 5 참고.

4. 논의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

도학습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정서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Seo[28] 연구의 3.21점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Ahn[29]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경우 3.47점이 나온 결과에 비해 높았다.

하위영역으로는 Seo[28]의 연구에서 감정이입, 정서 활용,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의 순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입, 정서 활용,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조절의 순으로, 그중 감정이입이 가장 높고, 정서조절이 가장 낮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였고, Kang과 Ahn[29]의 연구와 비교 시 정서 활용, 감정이입의 순서가 바뀐 것 외에 동일한 순서를 보이며 정서조절이 가장 낮게 나오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서지능에서 감정이입은 '공감'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실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25], 이 항목이 가장 높은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에 맞추어 가는 한국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자[30], 여성이 가지는 특성의 결과로 보여진다. Seo[28]의 연구와 Kang과 Ahn[29]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감정이입의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31], 특히 청소년기는 교우관계가 중요

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능력, 즉 공감능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치중되다 보면 자신의 정서가 존중받지 못할 때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하위영역과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정이입 항목에 비해 정서조절 부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 항목은 정서지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25].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진행되는 전환기로, 이러한 발달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 정서적인 부담을 주는 일상적 상황들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 정서 경험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이다[32]. 따라서 다소 정서조절 영역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서조절 방법을 교육하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점 2.48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ang과 Ahn[29]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경우 3.57점, Park[33]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경우 2.84점인 결과에 비해 낮았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여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Ahn[29]의 연구와 한 지역에 소재한 4개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3]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경우 지방에 소재한 1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확대된 대상자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위영역으로는 Park[33]의 연구에서 일반계열의 경우 정보수집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정보수집활동이나 진로탐색활동이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로 대학입시에 관련된 진학 위주의 진로준비행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자신의 특성, 소질, 능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을 위해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기회제공 및 지도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직업이나 학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면담하여 학업 및 직업세계를 직접 알아가고 직업 체험을 하는 등의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여 진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점 3.40점(평균 197.2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문계열

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4]의 연구에서 평균 196.6점이 나온 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35]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평균 197.1점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Hong[27]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평균 188.3점이 나온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Choi[36]의 연구에서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방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실습환경이 많아서, 학습행동양식에서 서로 협동하고 즐기는 태도가 더 많은 데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개인적이고 주도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8가지 하위요인 중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 창의성 요인과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 항상 학습하려는 태도, 지식의 근원에 대한 탐구심 등의 새로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요인이 가장 높았고, 다른 요인들에 비해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능력 수준에 맞게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주도성과 독립성 부분이 미흡하게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문계열의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선생님과 부모님의 개입과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심감의 결여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진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학습역량을 코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성을 더욱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왜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주도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조력자 역할과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 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적이 '상' 인 집단이 '중', '하' 인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7]의 연구에서 학력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높은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와 Joo[23]의 연구에서 성적이 '상'인 학생들이 '중', '하' 학생들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게 나온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충동을 통제하며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이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학생들에게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자랑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작용하여, 성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것은 직업포부에도 관련되어 진다 [38]. 따라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적 자신감이 약화 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나 욕구가 감소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서지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새내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4]의 연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Yang과 Park[3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스트레스로 사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어려움을 참아내며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동기화시키며, 희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12]. 따라서 높은 정서지능은 생활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켜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화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학습상황에서 원활하게 사고하도록 하고 학업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성 및 주도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고생 시기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개인의 독립과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기인데, 여고생이 남고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고 민감하기 때문에[40]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해질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고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 되어져야하며 정서지능의 수준을 신장시키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전략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양의 상관

관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41]의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체험 활동을 하는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원인데, 진로발달 변인인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 교육경험이나 직업체험활동을 한 경우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한 Choi와 Kim[2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20], 진로목표가 뚜렷하고 자신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활동과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42] 자기주도학습능력과도 관련되어져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수행 여부가 개인의 미래 진로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학습을 하는데 있어 내적인 동기부여가 더욱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의 목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청소년 스스로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설정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 함양과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고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서지능, 성적, 진로준비행동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4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4]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 Kim[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Hong[43]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이 중요함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급변할수록 개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이해, 그리고 조직에서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공감 능력이 강조되며, 이에 따라 인재양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44].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해나가야 하는 시기로,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정서적 능력이 필요하고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45].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무한한 입시경쟁 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틈도 없이 학업 스트레스에 내몰리고, 여전히 정해진 교과과정을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나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시간 학습상황에 노출되어서 경험하는 정서는 긍정적인 경우도,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Graziano 등[46]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는 학습 경험 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학습전략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Lee와 Kim[44]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적 정서를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시키고, 정서가 수행에 강력한 동기적 근원이 되어 자신감과 유능감을 갖고 학업에 주도적으로 몰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ho[47]는 긍정적인 정서는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이고 정보처리적인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학업수행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은 갈등을 조절하고 학습에 주도성을 가지고 개인의 역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44].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과 공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건 강한 학습습관이자 역량으로 결국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4]. 이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 문제를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하는 주도적 학습습관을 길러 정서지능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지능과 더불어 성적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학업 성취수준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역량 요인을 살펴본 Sung과 Choi[48]의 연구에서 보통 수준의 성적을 지닌 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고, 하위요인으로 학습기술, 수업에 대한 태도, 시간관리, 학습전략, 학습에 대한 가치나 신념 등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지

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49], 진로성숙도[3], 진로발달 관련 변인[21] 등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ang[49]은 진로탐색 참여, 진로 심리검사 참여, 진로상담 참여 등 학생의 진로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은 학습의 학습동기나 자기주도학습과 같은 학습태도 및 행동변수들과 유의적인 관계가 높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은 분리된 일이 아니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동기화된다면 스스로 학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즘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따라 자기주도력을 갖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를 개척하고 노력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보이는 실천적 행위의 충실성이 스스로 동기를 조절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로와 학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성별, 학년별 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여고생의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계열,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정서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적, 진로준비행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0%이었다. 결론적으로 여고생의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서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자는 지식 전수가 아니라 왜 학습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코칭해 주는 멘토(mentor)로서의 역할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학습 및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바, 교육과정 속에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진로와 꿈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적 접근방법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S. Yu. (2018), Future Education in USA fo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 H. B. Jung.(2017.8.28.).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crisis and opportunity for women. *Korea JoongAng Daily, column*.
<https://news.joins.com/article/21879481>
- [3] I. S. Choi & E. J. Joo.(2013).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elf-Directed Learning Perceived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169-206.
- [4] K. C. Kim & A. K. Yang. (2019).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University Freshm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1(2)*, 574-585.
DOI : 10.13000/JFMSE.2019.4.31.2.574
- [5] Y, K. Choi. (2017). Future Education Forecast and Prospe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Horizon, 33*, 32-35.
- [6] M. H. Kim. (2009). The Effect of an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6(1)*, 1-20.
- [7] M. S. Knowles.(1975). *Self-directed learning - A guide to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 Follett Publishing Company.
- [8] B. J. Zimmerman, (1989).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30)*, 329-339.
DOI :10.1037/0022-0663.81.3.329
- [9] J. Y. Lee &, J. Y. Chung. (2019). An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Based on the 5th Year Survey Result of GEP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7(2)*, 197-221.
DOI : <http://dx.doi.org/10.22553/keas.2019.37.2.197>
- [10] J. D. Mayer, M. Dipalio. & P. Salovey.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 772-781.
DOI : <https://doi.org/10.1080/00223891.1990.9674037>
- [11] H. I. Jeong, D. Y. Cho, J. S. Choi, J. M. Lee, E. H. Chang & H. J. Kang. (2018). Study on the Required and Priority Competencies for Future Talent at Life Stag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4(4)*, 61-92.
- [12] D. Goleman.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13] H. Y. Koo, H. S. Park, & E. H. Jang.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51-158.
DOI : <https://doi.org/10.4040/jkan.2006.36.1.151>
- [14] P. A. Graziano, R. D. Reavis, S. P. Keane & D. S. Calkins.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s early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3-19.
DOI : <https://doi.org/10.1016/j.jsp.2006.09.002>
- [15] Y. O. Lee.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for Adolescents :Focus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 [16] H. R. Hwang & J. Y. Kim. (2013). The Effects of a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nhancement Program Using Play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velopment for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6(4)*, 397-419.
- [17] J. Y. Park.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18] H. J. Lee. (2007). *The Effect of Career Course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19] M. H. Kim & W. Y. Choi. (2014).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General Female High School Student, Career dic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outcome expect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83–107.
- [20]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21] Y. J. Choi & J. E. Ki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Application of Multilevel Analysi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2), 81–106.
- [22] J. H. Lee. (2010). A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23] I. S. Choi & E. J. Joo. (2013).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elf-Directed Learning Perceived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169–206
- [24] M. P. Driscoll (2000).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in learning. Psychology of Learning for Instruction*, Massachuse: Allyn and Bacon.
- [25] H. Y. Kim. (1999).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ment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ty, Daejeon.
- [26] W. S. Park. (2002). *The Rela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Psychological separation, Sex-role identity, Academic achievement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27] Y. P. Hong. (2002).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8] J. M. Seo. (2011).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 [29] W. D. Kang & G. Y. R. Ahn(2015).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4), 739–764.
- [30] M. J. Kim. et al.(2013). *Who are Koreans*. Paju: 21C books.
- [31] H. S. Sim & J. H. Wang.(2001).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of the Elementary School Chi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3(1), 163–175.
- [32] K. A. McLaughlin, M. L. Hatzenbuehler, D. S. Mennin & S. Nolen-Hoeksema.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9), 544–554. DOI : <https://doi.org/10.1016/j.brat.2011.06.003>
- [33] J. T. Park.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34] S. H. Kim.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overprotection, psychological separ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35] S. Y. Choi.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Effect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36] W. S. Choi. (2016). A Study on Learning Behavioral Style of the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 e-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16(2), 129–148.
- [37] J. Y. Park.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38] Y. J. Gong. (2011). The Development of Youth's Occupational Aspirations: The Role of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x-roles in Predicting Occupational Aspiration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1), 127–141.
- [39] M. S. Lee, A. K. Yang & H. G. Park (2014).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ttributional tendency on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T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0(2), 201~213.
- [40] U. C. Kim & Y. S. Park (2004).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973–1002.
- [41] J. Y. Park.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0(4), 257–274.
- [42] S. A. Bae & S. Y. Sung.(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859–877. DOI : 10.22251/jlcci.2019.19.2.859
- [43] Y. J. Kim & H. Y. Hon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2(4), 31-46.

- [44] S. J. Lee & H. Y. Kim.(2019).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Determination and Learning Flow.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229-239.
DOI :10.35873/ajmahs.2019.9.8.021.
- [45] H. Yoo & L. A. Kim. (2003).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dolescent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0(1)*, 1-20.
- [46] P. A. Graziano, R. D. Reavis, S. P. Keane & D. S. Calkins.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s early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3-19.
DOI : <https://doi.org/10.1016/j.jsp.2006.09.002>
- [47] H. I. Ch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and Learning Strateg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1)*, 313-324.
- [48] E. M. Sung & H. S. Choi. (2016). Exploring the Critical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on High-Achiever of High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4)*, 215~237.
- [49] H. J. Jang. (2018).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on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1(1)*, 21-42.
DOI : 10.32341/JCER.2018.03.31.1.21

이 경 완(Gyoung Wan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원광대학교 의학과 의학 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
- E-Mail : wan1010@wu.ac.kr

이 명 인(Myung In Lee)

[정회원]



- 2014년 8월: 전북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 E-Mail : milee@wu.ac.kr